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 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57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2년 9월 30일(금)

## 초대 문장(門長)에 심정구 인수부윤공파종회 명예회장



심대평 대종회장(왼쪽)이 7월 21일 회장단회의에서 초대 문장인 심정구 인수부윤공파종회 명예회장(오른쪽·4선 국회의원)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추대패에는 “귀하께서는 그동안 높이신 덕망으로 청송심문을 빛내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어 2022년 6월 15일 개최한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청송심씨대종회 제1대 門長으로 추대되었으므로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 종중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3면에 인터뷰〉

## 사라진 4세조 악은공, 5세조 영동정공, 6세조 석촌공 묘소 세상이 말하는 ‘안동 심판서 묘’는 정말로 이들의 묘소인가



### ‘안동 심판서 묘역’ 탐방기를 연재하며

경북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가장실) 산37번지 우륵산 기슭에는 흔히들 “심판서 묘”라고 해서 4기의 묘소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묘소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양식이어서 심문에서는 혹시 이 묘소들이 실전(失傳)한 4세조 악은공 심원부(岳隱公 沈元符), 5세조 영동정공 심천윤(令同正公 沈天潤), 6세조 석촌공 심효상(石村公 沈孝尚)의 묘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우리 선조는 크게 벼슬길로 나아간 경과(京派)와 시골에서 은둔생활을 한 향파(鄕派)로 나뉜다. 어느 쪽이나 귀한 선조들이다. 그런데 현재 향파의 큰 줄기인 4, 5, 6세조의 묘소가 없다. 그러니 만약 ‘안동의 심판서 묘’가 이들의 묘소로 확인된다면 심문에게는 엄청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종보는 전문가들과 석촌공종회가 ‘심판서묘소 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이 지역을 탐방한 기록을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다.

〈4,5,6면에 기사〉

‘안동 심판서 묘역’에 있는 4기의 묘 중 위에서 세 번째 묘. 가장 큰 데다 3단으로 되어 있어 이 묘역이 만약 심 판서 묘역이 맞다면 악은공 할아버지의 묘일 가능성이 있다.

## 10월 2, 3일 개최하려던 제2차 한마음대회 연기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내년 4월 춘향, 또는 10월 추향제 때 개최 검토 〈2면에 관련기사〉



# 沈영감 심민섭



## “13상신, 3왕후 복장으로 참배하려 했는데...” 제2회 한마음대회 기다렸던 일가들 아쉬움

10월 2, 3일 심문의 분향인 청송에서 열기로 한 제2회 한마음대회를 연기한 경위와 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지난 7월 5일 대종회는 서울에서 심대평 대종회장 주재로 지파총회와 청장년회 지역대표자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3년마다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마음대회는 10월, 2, 3일 청송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7월 21일 대종회 회장단회의에서 추진했습니다. 다만 올 한마음대회는 8월 하순 경에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대종회는 이번 한마음대회에 대한 일가들의 참여 의지와 열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제1회 대회를 능가하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삼한갑족의 명문가문답게 16명이 13상신 3왕후의 관복차림으로 소헌공원에서 현비암까지 행진한 뒤 시조 문림랑공 묘소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가분들의 신청을 받아 1일 상신, 1일 왕후의 복장을 경험하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밖에 유명 영화제에 입상 경력이 있는 한 영화감독으로부터 “제2회 한마음대회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종회 회장단회의가 말한 8월 하순 경 코로나19는 뚜렷하게 재유행 기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3천371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2천 270만192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66명이었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87.6%인 496명이었습니다.

대종회는 8월 26일 회장단 회의에 이러한 사정을 보고했고, 논의 결과 제2회 한마음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13상신 3왕후에 더해 4부마까지 관복을 입고 행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회를 연기한 이유는 참가자의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고, 고령층이 대다수인 청송군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우리 문중행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종회는 일단 시간을 번 만큼 내년 4월 춘향제 또는 10월 추향제에 맞춰 제2회 한마음대회를 여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으며, 그럴 경우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일가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3상신 3왕후 재현 행사 때 입을 관복(제복)



제2회 한마음대회에서는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 13상신과 3왕후의 복장을 만들어 입을 예정이었다. 모델은 여수 남양종합목재 심은택 회장과 부인 박송애 여사.

**청송심씨가 아닌 외손도 청심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제5기 청심장학생 선발공고를 11월 30일 자로 발행하는 청송심씨종보 제 158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장학생 신청대상자는 중학생(특별전형), 고교1학년생, 대학(원)생, 특기생 및 일반인이며 장학금은 500~600만 원입니다. 고교1년생은 1학년 때 선발하지만 장학금은 2학년과 3학년 때 두 차례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와 청심장학회 홈페이지(cshim.org), 청송심씨종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심장학회 사무국  
02) 2267-7857, 02) 2267-9339



# “일가들과 대종회의 가교역할로 심문 발전에 기여하겠다” 심정구 초대 문장의 신조 “남을 배려하고, 욕심내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심정구 문장은 “대종회와 일가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음으로 써 청송 심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화의 계절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앞에서’ 라는 시가 있다. 그중에서도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는 3연(聯)이 가장 사랑을 받는 듯하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 연이 관조와 달관을 표현했다고 배웠다. 심정구 초대 문장을 만나면서 이 연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나이 92세. 4선 국회의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인수부윤공파종회의 어른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온 그에게서 관조와 달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9월 2일 인천을 대표하는 물류기업 선광(鮮光)의 명예회장실에서 심정구 초대 문장을 만났다.

—초대 문장(門長)으로 추대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심대평 대종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문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 어머어마한 자리더군요. 가문의 영광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종회는 대종회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나는 청송 심문이 더 잘되도록 보조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문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예전에는 집행부가 대종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때 문장을 맡았다더라면 대종회의 전횡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일도 거의 없고, 심대평 회장이 대종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 심문은 다른 종회보다 유대감도 강하고 조상들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대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문장이 된 것을 계

기로 남에게 듣거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대종회에 잘 전달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심 문장은 부친인 23세조 종익(鍾益) 어른이 청송심씨대동세보(무술보)를 중간할 때 쓴 서문을 보여줬다. 이 서문은 1972년에 쓴 것인데 활자가 아니라 자필이었다. 자필로 서문을 썼다는 것은 글씨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한자와 한글 모두 힘이 있으면서도 단아했다. 그런데 종익 어른은 면서기를 잠깐 지낸 적은 있으나 특별히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또 그가 무슨 자격으로 서문을 썼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런 분이 대동세보의 서문을 썼다는 것은 독학으로 공부한 수준이 상당했으며, 심문에 대한 헌신도 남달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심 문장은 종익 어른이 직접 쓴 다른 것도 보여줬다. ‘청송심씨세계도(靑松沈氏世系圖)’라는 것인데, 시조부터 자신의 손자 대까지의 이름을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간 일종의 한 장짜리 미니족보였다. 이름 옆에는 벼슬이나 자(字), 부인 이름까지 들어있어 말 그대로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작품’이었다. 핏줄에 대한 사랑 없이는 결코 업두를 못 낼 일이다.

심 문장은 그러면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어떤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5년을 하면서 산업위원회 2년을 빼고는 13년간 재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재무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마지막 2년은 예결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예결위원장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중앙당이나 청와대는 야당한테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야당이 얘기하면 50~60%는 들어줬습니다. 그런 소신으로 해서 그래도 원만하게 위원회를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심 문장은 그러면서 “심 씨는 인천에서 잘 알려진, 인천을 대표하는 성(姓)이다. 그러나 욕하는 사람이 없다. 물류기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 직종이지만 나는 15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선광에게 일감을 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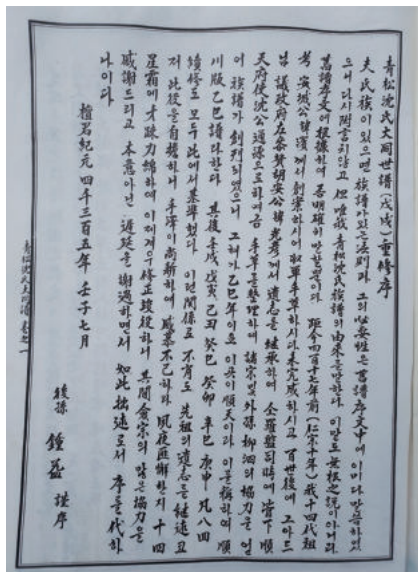
심 문장은 2013년 인천광역시에서 펴낸 <인천광역시사> 3권에 실린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조로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금씩 정진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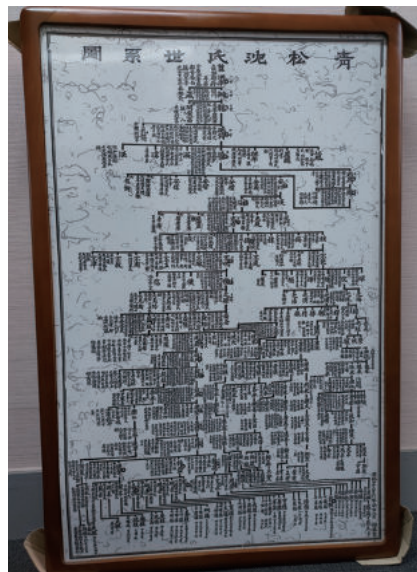
가면 결국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심 문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몇가지는 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심 문장의 신조는 심문의 제일 어르신다운 신조였다.

<인터뷰=심규선 종보 편집장>



심정구 문장의 아버님이 쓰신 대동세보(무술보)의 중간본 서문(왼쪽)과 ‘청송심씨세계도’.



영의정 심치원 할아버지 묘소와 파평 윤씨 윤관의 묘소 사이에 산송(山訟)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현장에서 윤씨 집안에서 심은 나무들을 뽑아버리기도 하는 등 집안일이라면 대단히 적극적이었다”면서 “형님들도 아버지를 돕느라 매우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보면 아버지와 형님들은 인수부윤공파만이 아니라 청송심씨 전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문장의 설명을 들으며 문장은 개인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노력과 분위기가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효행을 예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심문은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송조돈목 정신을 앞세워 젊은 일가들이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 느끼신 가장 보람이 있다면

## 심정구 문장은?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고등학교와 서울대 상과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둘째 형 명구 씨(2008년 작고)가 인천에서 창립한 ㈜선광에서 근무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인천직할시에서 당선된 뒤 내리 4선. 민자당 인천시당 위원장, 국회 재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인천고 총동창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5번 연임했고, 한국-노르웨이, 한국-파나마 국회의원 친선협회장, 조세재정연구회장 등도 지냈다. 16대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 돌아와 선광 부회장과 회장을 거쳐 선광문화재단 이사장과 선광 명예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종회 회장을 오랫동안 지냈으며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심판서 묘역 탐방기 연재 ①

# 조선전기 돌방무덤 4기 확인...결정적 증거는 아직

- 연재 순서**
- 1회(중보 157호, 2022년 9월)
    - 1. 두 차례 조사한 '안동 심판서 묘역'
    - 2. 방치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묘 4기
    - 3. '심판서 묘'와 관련한 사료와 전설
  - 2회(중보 158호, 2022년 11월)
    - 4. 심원부 선조는 두문동 72현인가
    - 5. 사료만으로 추적한 심원부, 심천운, 심효상의 묘
    - 6. '심판서 묘역'과 '추정 묘역'과의 비교
  - 3회(중보 159호, 2023년 1월)
    - 7. 묘역의 주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8. 탐방기 연재를 마치며

### 1. 두 차례 조사한 '안동 심판서 묘역'

세상에서 '심판서 묘'라고 말하는 '안동 심판서 묘역' 탐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1년 추석 전후로 청송심씨 대종회는 안동에안중중으로부터 우륵산 줄기인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가장실) 산37번지에 '심판서 묘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는다. 그리하여 대종회와 약은공중회의 40여 명이 현지에 머물면서 지역 노인들에게 구전되어 온 이야기도 듣고 묘소도 답사하며 상세하게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한된 정보와 탐지기기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에 경의재를 건립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4월 7일 중보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심재석 박사(청송심씨 13정승 약사의 저자)가 '안동 심판서 묘소'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심대평 회장이 현장 답사를 지시했다. 4월 23일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종래 전 LH강원본부장,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상헌 청송향토사연구회 위원, 심상벽 청송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등이 묘소를 답사했다.

5월에 6세조 석촌공(휘 효상)을 기리는 석촌공중회(회장 심상조)는 '안동 심판서 묘소' 현장 답사 및 탐문 이야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석촌공중회 일가분들의 뜻을 모아 '심판서묘소규명위원회(위원장 심재오,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수시로 자료 공유와 토론을 했다.

6월 13일 심상조 회장은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재열 동국대 생활풍수지리학 교수, 심재오 위원장, 심종래 전 LH강원본부장,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상벽 청송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광섭·심장섭 약은공중회 전현직 총무, 심남규 전 청송군 과장 등과 함께 두 번째 현장 답사를 했다.

위원회는 묘역 답사 등을 마치고 안동 시내에 모여 논의한 결과, '심판서 묘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째, 안동 현장 탐사와 병행해 '심판서 묘역'과 관련한 사료와 전설을 조사한다.

둘째, 현장 탐사와는 별도로 옛 사료(세종실록지리지, 비문 등)만을 토대로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 등을 고려해 심원부 선조님 등의 묘소가 있을 만한 지역을 추정한다.

셋째, '현장탐사(전설 등 포함) 결과'와 '사료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해 일치 정도를 분석한다.

넷째, 고증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조사하되, 고

증하는 동안에 '심판서 묘'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관련 사례를 조사한다.

### 2. 방치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묘 4기

현장에서는 여말선초의 묘 형식 4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묘역 바로 아래에 거주하는 안동 권씨 노인(약 78세)을 만나 묘소에 얽힌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

'심판서 묘역' 관리인을 자처해온 권 씨는 "이 마실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심판서 묘소'라고 들어 왔다. '큰 사람(판서) 묘소를 관리하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을 믿고 30년 정도 별초를 해 왔다"고 했다.

또 심상헌 위원이 만난 이웃 주민 영양 남씨 기석씨(70세 정도)는 "이곳은 고려시대 3판서(判書)를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판서', '심(沈)판서', '또한 분의 판서'가 그분들이다. 어렸을 적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심판서 묘소가 있는 산의 주인은 안동 권씨인데, 심판서 묘소 앞에 석물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잘 나가던 아전이 자기 집안의 묘소 부근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이 있으면 안 좋다는 유명 풍수가의 말을 듣고 심판서 묘소 좌판 등을 부수고 석물을 보이지 않게 아래로 굴러 땅에 묻었다고 들었다. 내 밭이 그 묘소 아래쪽에 있는데 그곳에 석물을 묻었다는 얘기가 있으니 발견하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심판서 묘역'에 있는 4기의 묘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사용된 양식이다. 돌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으로 볼 때 4기 모두 조선 전기에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열 동국대 생활풍수지리학 교수는 "심판서 묘소"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드문 여말선초 양식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했다.

고려 시대 무덤은 둥근 원형(왕릉과 귀족층)과 네모진 방형(권문세가, 양민)으로 돌을 많이 쓴다. 반면 조선 시대의 묘는 보통 원형이며 하부석을 두르고, 무덤 안은 회(灰)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심판서 묘역'은 네모진 방형의 돌방무덤이다. 이는 전형적인 고려 시대의 양식이며, 이런 양식은 조선 전기까지 사용했다. 4기의 묘는 수십m씩 떨어져 있다. 중간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한 눈에 볼 수는 없다.

4기의 묘 중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묘가 가장 크다. 이 묘는 길이 6.3m, 너비 4.8m 정도의 사각형 묘로 현실(玄室)은 길이 3.6m, 너비 1.4m, 높이 1.5m 정도이다. 위로부터 첫 번째 묘와 두 번째 묘는 크기가 비슷하고 맨 아래 네 번째 묘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다.

세 번째 묘가 연장자의 묘라면 이 묘역은 역장(逆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장은 성리학이 뿌리를 내린 조선 중기 이후에나 금지시켰고, 그 이전에는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4기는 모두 무너져 있다. 세 번째 묘는 도굴당한 흔적도 보이거나 형태는 알아볼 수 있고, 위의 두 묘는 더 허물어져 있고, 맨 아래 묘는 심하게 허물어져 형태를



심판서 묘소 규명위원들. 왼쪽부터 심상벽, 심상익, 심광섭, 심종래, 심재열, 심상조, 심재오, 심남규, 심장섭. (촬영 심준섭)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맨 아래 묘는 후에 묘 밑을 가로질러 임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려나갔다.

### 심판서 묘역에 있는 4기의 묘 흔적



사진의 위 아래 순서가 실제로 산에 있는 순서이다.



심판서 묘역 탐방기 연재 ①

# 안동읍지·마을전설·영양남씨와의 관계는 심증 뒷받침

### 3. '심판서 묘'와 관련한 사료와 전설

#### ① '심판서'에 대한 조사

답사단은 안동시의 고려 후기 및 조선 전기의 사료를 조사했다. 먼저 안동과 관련이 있는 심판서는 누구인가를 살펴봤다. 심 씨 중에서 여말선초에 안동에서 태어나 판서가 된 인물은 전리판서를 지낸 4세조 악은공 심원부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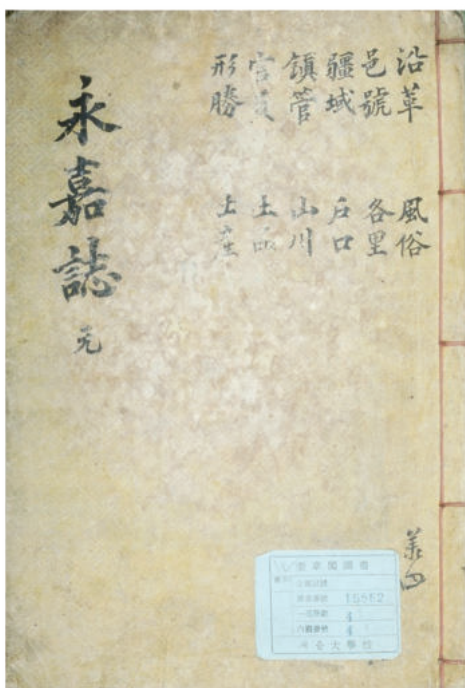
1975년에 악은공종회가 '심판서 묘'에 대해 건의한 글이 있다(청송보 12호, 1975년 8월). 이 글에 따르면 악은공종회는 "안동군 와룡면 가장실 소재 세칭 「심판서 묘」가 있는데 심씨 선대의 묘라는 것이다. 이 묘소는 아마도 봉익대부 성(晟), 상호군 경(卿), 악은공 원부(元符), 의금부 판사공 의구(義龜) 중의 한 분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대종회에서 수호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 이 묘가 봉익대부, 상호군, 판사공 묘소일 가능성은 낮다.

#### ② '심판서 묘'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심원부에 대한 조사

심원부(1330년?~1394년?) 선조는 형님인 심덕부(沈德符, 1328~1401)와 고려 후기에 안동군 태현리 대능촌(安東郡 台顯里 大陵村, 현재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동으로 추정. 와룡면에 인접한 지역)에서 출생했다.

심원부의 호는 악은(岳隱)으로 벼슬길에 올라 고려 전리판서를 지냈다. 익재 이제현의 문인으로 신진사대부의 길을 걸었으며, 고려가 망하자 후손들을 모아놓고 조선의 벼슬아치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정몽주에 동조하며 두문동에 들어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켜 고려 충신 두문동 72현의 한 분이 되었으며, 고려 5은(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농은 민안부, 악은 심원부)으로 추앙받고 있다.

#### ③ 안동읍지 영가지(永嘉誌) 조사



안동읍지인 영가지 표지

1608년(선조 41년) 권기(權紀) 등이 편찬한 안동읍지인 영가지(永嘉誌)에는 '심원부 묘'가 있는 마을인 서가현촌(西可峴村, 현재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에 고려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조선 초 호조참의(증직 호조참판)를 지낸 그의 아들 남민생(南敏生, 1348~1403)이 정착한 이래 고려말부터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이 두 사람의 묘를 지키며 살아오고 있다고 쓰고 있다.

#### ④ 안동 서지리(서가현촌) 마을의 전설

남휘주, 남민생과 심원부는 어떤 관계일까? 안동 서지리(서가현촌)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원래 이 마을은 3판서의 출생지이며 아주 부촌이었는데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니 마을 사람들이 시주를 많이 할 테니 유랑민이 적게 오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은 숲을 가꾸고 동구 뒤 암석을 뜯어내면 손님이 적게 올 것이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은 스님 말대로 숲을 가꾸고 암석을 뜯어냈는데, 이때 학 세 마리가 날아갔다고 하며 곧 동리가 폐쇄되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선돌뱅이 전설도 마을에 전한다.

안동 와룡면 일대에서 태어났거나 은거한 사람 중 판서를 지낸 세 분은 똑같이 고려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심원부가 확실하고, 다른 한 분은 고려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를 역임하고 조선 숙종 때 병조판서로 추증된 배상지(裵尙志, 1351~1413)일 가능성이 높다.

#### ⑤ 남민생(남휘주의 아들)과 심천윤(심원부의 아들)의 관계

남휘주의 아들 남민생과 심원부의 장남 심천윤은 어떤 관계였을까. 남민생은 고려조에 무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라 위위소운 등을 지냈으나 이성계가 등극하고 공양왕이 원주로 은둔하자 고려조의 절의를 지키기 위해 안동 향리로 돌아와 종적을 감춘 인물이다. 조선 태종이 즉위해 평해군사에 제수하니 부득이 취임했고 후에 공조참의가 되었다. 사후 호조참판에 증직됐다.

민생이 지은 '題松京(제송경)'이란 현판시가 남흥재사 원모루에 걸려있다. 이 시를 읽어보면 남민생은 고려와 조선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

군의 충절과 조선의 신하로 녹을 먹고 있는 자신의 처지 사이에서 상당히 괴로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길재 선생과 교류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심천윤(沈天潤, 생몰연도 미상)은 아버지 심원부가 불사이군의 충절로 두문동에 들어가 서거하자 자신도 재능을 숨기고 지조를 지키며 농사를 짓고 살았다.

당시 임금은 심천윤을 기용하려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 심원부와 함께 두문동에 은거했던 원천석(元天錫, 1330~?)도 간곡히 출사를 권했으나 역시 거절했다. 이에 태종이 산관(散官, 명예직)인 영동정(令同正)의 벼슬을 내리고, 심천윤의 충효를 기리기 위해 정려(旌閭)를 세웠다.

심천윤은 야은(冶隱) 길재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다. 그의 제단비명에는 길재가 귀향(善山의 金鳥山)할 때 시(詩) 두 편을 지었다고 쓰여 있다. 그 중 한편이 다음의 시이다.

피골 피골 피꼬리 울고 간들간들 능수버들 늘어지는데  
그대 남쪽(고향)으로 돌아가니 길가에서 전송하도다.  
언제 또다시 만나려나 자네 손 잡고 말 나누며  
술이 많이 있으니 큰 잔으로 나누어 보세.  
한강수는 양양 흐르고 금오산 가는 길은 멀고 먼데  
그대 남쪽으로 돌아가니 저곳은 한가롭겠네.  
날이 벌써 저물었으니 가는 길 고생이 많겠네.  
그대가 옆에 있지 않으면 그 누가 내집 문을 두드리리.

우리는 남민생과 심천윤의 시를 통해 두 분이 고향도 같고, 길재와도 모두 친분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원장 재오 송소고택 장주
- 위원 종래 안효공과효창공종회
- 장섭 악은공종회 총무
- 광섭 전 악은공종회 총무
- 준섭 석촌공종회 총무
- 상백 석촌공종회 재무
- 상헌 청송사학연구위원
- 특별위원 상조 석촌공종회장
- 재열 안효공과·교수
- 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영양남씨의 남흥재사



# 1972년 심판서 요약 조사를 위해 악은공종회가 종인들에게 보낸 통문

묘소가 있는 바,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

⑤ 산 아래 '서각' 마을에 옛날 세 판서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

⑥ 산 아래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산소가 '심판서' 산소라고 통칭되어 왔다는 것.

⑦ 600년 아래 심씨 중에 전리판서를 지낸 인물 중에 묘소를 잃어버린 경우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미루어 위 묘소가 악은공선조의 묘소라고 긍정할 만한 심증(心證)은 수없이 많다. 또한 심증을 기하는 차원에서 "악은공묘소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당시 모인 종친 전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좀더 이 묘소를 면밀히 살피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악은공파 문중회의를 산 아래에서 개최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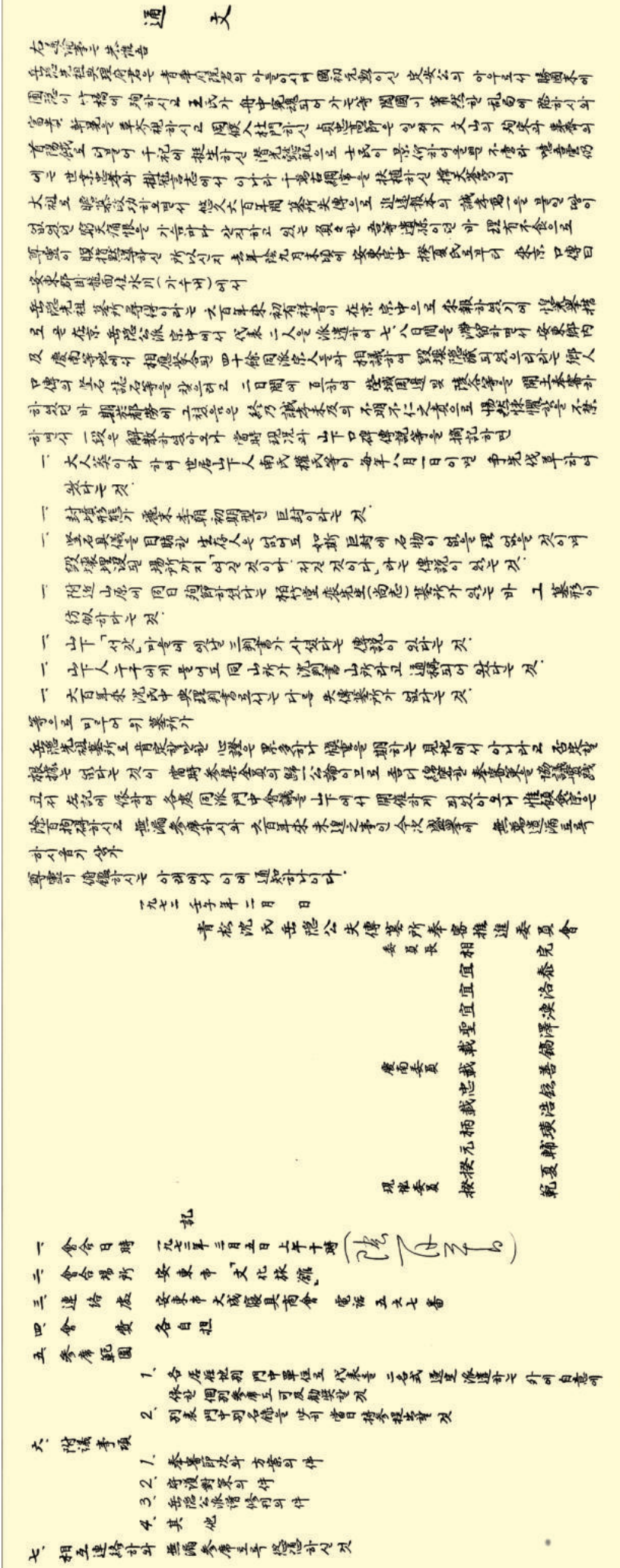
참석을 희망하는 종친은 만사를 제쳐두고 모두 참석하시어 600년 아래 해결치 못한 일을 이번엔 남김없이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혼령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972년 임자년 2월 일  
청송씨악은공파실질묘소봉사심주임위원회

위원장 相完 宜泰 宜洛 聖澤 載鎬  
정남위원 載善 忠鉉 載鎬 枴瓚 元輔  
현지위원 揆範

-----아래 -----

1. 화합일시 : 1972년 3월 5일 상오 10:00
2. 회합장소 : 안동시 <문화여관>
3. 연락처 : 안동시 대성집구상회, 전화 - 567년
4. 회비 : 각자 부담
5. 참석범위
  - ① 각 거주지별 문중 단위로 대표를 2명씩 선정하여 파견하는 위에 자발적인 개별 참석도 가급적 권장할 것.
  - ② 발표 문중 별로 인명록을 반드시 당일 지참하여 제출할 것.
  - ③ 악은공파보 수간(修刊)의 건
  - ④ 기타
6. 부의 사항
  - ① 봉심절차와 병인의 건
  - ② 수호 대책의 건
  - ③ 악은공파보 수간(修刊)의 건
  - ④ 기타
7. 상호 연락하시어 빠짐없이 참석토록 종용하실 것.



이 통문(通文)은 "1972년 3월 5일 안동군에서 '심판서 묘'에 대해 논의할 테니 각 거주지별 문중 단위로 2명씩 참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시기는 2월이다. 통문을 만든 시기는 2월이다. 통문을 만든 시기는 2월이다. 통문을 만든 시기는 2월이다. 통문을 만든 시기는 2월이다. 통문을 만든 시기는 2월이다.

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왔다.

아~, 우리 후손들은<sup>4)</sup> 대대로 충효를 집안 대대로 이어왔으며 심원부 어른은 <언지록>에서 말하듯이 나라의 오랜 강상을 높이신 위대한신 어른이다. 그분의 정치적 공로를 우러러 사모하면서, 600년간이나 묘소를 잃어버려 선조를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는(추원보본)<sup>5)</sup> 요성의 만분의 일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이 사무치는 이 아픔을 가슴마다 간직하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저승에 계신 조상의 혼령이 말없이 인도하신 까닭이인지, 작년(1971년) 음력 9월 말경에 안동 종인 심규하(沈規夏)<sup>6)</sup>가 서울에 올라와 전하기를, "안동군 와룡면 기수천(기수내)에서 악은선조 묘소를 찾았다"고 했다. 이는 600년 아래 최고로 상서로운 소식이 서울 종중에 알려진 것으로, 부락부락 서울 악은공파 종중에서 대표자 2인을 파견하여 7~8일간 현지에 머물게 했다. 그러면서 안동과 경남 등지에서 모인 40여 명의 악은공파 종인들과 상의해, 훼손되고 파괴되어 감춰져 있을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구전(口傳)을 기반

<번역문>  
통 문

다음 사항을 삼가 공손히 알립니다.  
전리부군(典理府君·전리판서)을 지낸 악은공 선조님은 청화부원군 심용의 아들이시며 국조원훈(조선)을 개국한 공신)이신 정안공 심터부 선조님의 아우이다. 승국(勝國·고려) 말기에 포은 정몽주(鄭蒙)가 선죽교(竹籠)에서 순절하시고 왕씨가 주증원훈(柳中淸獻)<sup>1)</sup>이 되어 가는 등 전국이 쓸쓸한 난국을 만나 부귀와 고관대작을 초개와 같이 여기시고 고령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켜 두 문동에 들어가셨다. 선조님의 충심과 고귀한 절개는 일찍이 문천상<sup>2)</sup>이 송나라를 위해 순국한 것과 백이숙제<sup>3)</sup>가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죽은 이야기와 함께 오랜 세월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빼어난 충절의 모범으로서 사대부와 백

- 1) 주증원훈(舟中淸魂): 조선 개국 시기에 고려 왕족을 배에 태워 몰살시킨 일.
- 2) 문산(文山): 송(宋)나라 문천상(文天祥)을 말하는 것으로 호가 문산(文山)이다. 몽고족인 원(元)의 군사에 붙잡혀 굶기지 않고 시시(柴市)에서 참살했다. 원세조(元世祖) 쿠빌라이가 '참으로 남자'라고 칭찬했다. 『오류행실도』에도 '진상불굴(天祥不屈)'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3) 백이숙제(伯夷叔齊): 백이와 숙제는 중국 은나라 사람이다. 주 무왕이 은 주왕을 저러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그러지 말라고 간언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어 죽었다.
- 4) 문익(文佚): 문진(雲孫)과 문은(勿孫). 대(代)가 먼 자손.
- 5) 『부조원언지록(不朝賢言志錄)』에서 심원부는 "충신 왕축(王黻)의 딸인 '충신불사이군'은 내가 공경하고 믿는 바"라고 했다. 왕축은 기원전 3세기 제나라 때의 인물로, 충신의 대명사이다. 제나라가 연(燕)나라의 공격을 받아 국왕은 도망가고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다. 이때 연나라의 장군 악의(樂毅)가 왕축을 초빙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며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史記·樂毅列傳』).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제나라 유민들은 왕축의 행동을 자금을 받아, 태자 전법정(田法章)을 찾아내 나라를 재건했다.
- 6) 추원보본(追遠報本): 조상의 덕을 추모해 제사 지내고,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 7) 심우영전 추무취 장란의 큰아버지이다.
- 8) 배상지(裴尙志): 1351년(충정왕 3) 파주 태생. 조선 건국 무렵 안동부 금계촌(金溪村, 서후면 금계리)로 이사했다. 김 주위에 차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그 집을 백죽당(栢竹堂)이라 했다.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외동면 서지리 사곡(寺谷)에 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 (27)

“독립운동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영택(永澤) 할아버지, 주비단 책임자로 독립운동자금 마련하다 옥고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보혜(輔慧)야, ‘옳은 일이라면 초지일관(初志一貫)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 무슨 뜻일 것 같니?

인천시 서구 지하철 2호선 독정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아파트 주변에 작은 공원이 아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당하1호 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면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인 영택(永澤) 할아버지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어.

이곳 공원에는 인천시 서구청에서 세운 ‘항일독립운동기념비’가 있는데, 이 기념비 앞면에는 이곳 출신 광복회 회원 38명의 명단이, 뒷면에는 이곳 출신 독립운동가인 유완무 선생과 우리 집안 영택(永澤, 1869~1949) 할아버지의 공적이 새겨져 있지.

영택 할아버지는 지금의 인천 서구 당하동(옛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광명마을에서 태어나셨어. 당하리(堂下里)는 ‘당(堂)의 아래쪽 마을’이라는 뜻이고, 광명마을은 인근 제림산에서 비가 갠 뒤 마을을 바라보면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아서 ‘광명(光明)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해. ‘광명’은 ‘광맹이’, ‘광메이’, ‘텃골’ 등으로도 불렀다고 하는데 모두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 이름으로 보이는구나.

영택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글을 익히셨어. 장성해 마을에 서당을 열어 청년을 가르치던 중 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겨레가 어려움에 처하자 분연히 일어나셨다고 해.

특히 비밀결사인 주비단(籌備團)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셨어. ‘주비(籌備)’는 ‘어떤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뜻이니, 주비단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는 단체’라는 의미겠지.

주비단은 1919년 5월경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성을 계획했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했지만, 나라 안팎에서 서로 연락하며 힘을 합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조직이 꼭 있어야 했지. 장응규(張應圭) 지사가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다녀온 뒤 더욱 결성을 서둘렀어.

1920년 서울 연지동 경신학교에서 주비단을 결성했는데, 조직은 사령장과 그 아래 부사령장·참모장·재무부·교통부 등의 부서로 두었지. 이때 우리 영택 할아버지가 주비단의 초대 사령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 부사령장에는 안중운(安鍾雲), 참모장에는 이민식(李敏軾), 재무부장에는 여준현(呂駿鉉), 교통부장에는 장응규(張應圭) 지사 등을 선임했어. 이밖에도 조경준(趙景俊)·소진형(蘇鎭亨)·신석환(申奭煥)·이철구(李哲求)·정인석(鄭寅錫)·이

규승(李奎承) 지사 등이 참여했지.

영택 할아버지는 즉각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팔아 당시 돈 6천여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셨어. 그러나 목표로 삼았던 경성신문사(京城新聞社) 인수에는 부족했지. 경성신문은 당시 경영난으로 폐간 직전에 있었는데, 주비단은 이를 사들여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으려 했던 거야.



영택 할아버지의 노년 모습과 1995년에 받은 훈장증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비단 조직이 발각되는 바람에 영택 할아버지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지. 그리하여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정치범을 처벌하는 소위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

그러나 다행히 일제의 유화 정책으로 출소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만주로 건너가 임시정부가 발간하는 ‘독립신문(獨立新聞)’의 연길지국장을 맡으셨고, 또 광복회에도 가입하셔서 꾸준히 활동하셨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위해 초지일관하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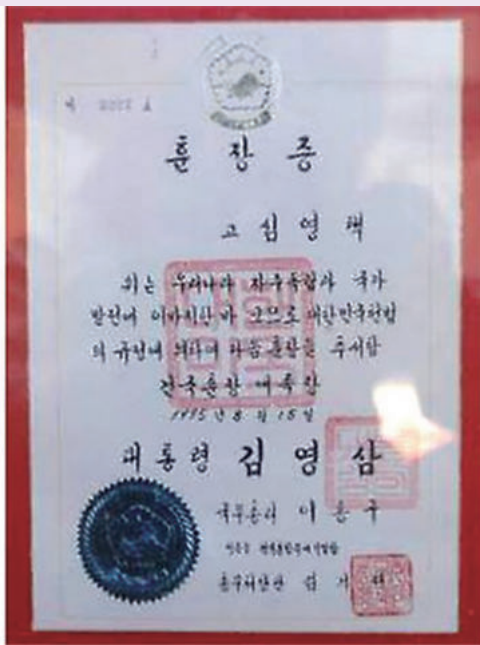
주비단 활동을 하실 때의 일화야. 어느 날 대여섯 살 된 손자 오섭이 보니, 할아버지 방에서 긴 수염을 붙인 어떤 사람이 검은 안경을 낀 채, 대나무 샷갓

을 쓰고 나오더라. 깜짝 놀란 오섭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누구냐?”고 여쭙보았더니, “네 할아버지이지” 하셨다고 해. 그래서 오섭이 다시 “그런데 왜 낯선 사람처럼 꾸미셨어요?” 하고 물으니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시다가 쫓기는 몸이 되셨다. 이제부터는 숨어 살아야 하신다. 누가 물으면 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고 하시더라. 그 뒤 한참 동안 할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즈음에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셨을 거야.

영택 할아버지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당을 열기는 하셨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1949년 11월 8일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독립운동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발굴되어, 돌아가신 지 46년만인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단다.

그때, 우리 영택 할아버지는 초지일관! 나라를 구하고자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구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1호 근린공원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비. 뒷면에 영택 할아버지 공적이 새겨져 있다.



자랑스러운 조상님을 소개합니다

# 사재 털어 청송 덕천에 거평보 쌓은 심흠 할아버지

## 3만 평 거실들 천수답이 옥토로...주민들 324년간 제수 보내



**심준섭**  
종보 편집위원·경운대 교수

### 1. 가산을 털어 보를 만든다

심흠 할아버지는 청송심씨 13세조로, 4세조 악은공(휘 원부)의 후손이다. 5세 영동정(천윤)→6세 석촌공(효상)→11세 벽절공(청)으로 이어지는 가계로, 부친은 ‘요동재사(堯洞齋舍)’

를 지어 교육에 힘쓴 응렴(應濂)이다. 흠 할아버지는 1611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의 청송심씨 본향에서 출생했다. 확(鑊)·당(鎗)·흠(鉉)·흠(欽) 4형제 중 막내였다.

이 홍수나 가뭄에도 끄떡없는 문전옥답으로 바뀐 것이다(묘비문, 대우혹한구무우려(大雨酷旱俱無憂慮)).

거실보는 소나무를 베어 걸치고 돌과 자갈을 섞어 튼튼하게 만들어도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곤 했다. 그러면 다시 쌓았다. 이후 300년간 거평보는 그 아래 농토의 가뭄과 홍수 걱정을 없앴으니 흠 할아버지의 업적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흠 할아버지는 거실보만 축조한 것이 아니라 사재를 털어 가난한 이웃도 구제하였으니(묘비문, 출



심흠 할아버지 묘소.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요동재사> 뒤쪽 언덕에 있다. 거실들 지주 후손들이 2007년 묘소 우측에 공적비를 세웠다.

행함을 많이 베풀어 이웃들이 송덕비를 세워준 경우가 있다.



200m에 이르는 ‘거평보’의 현재 모습. 원래는 소나무 등으로 만들었으나 40여 년 전에 시멘트로 교체했다. 심청 할아버지의 벽절정에서 가까운 곳이다.



‘거평보’의 혜택을 본 ‘거실들’ 평야 전경. 파천초등학교 뒤 3만 평이다.

경주최씨는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했다지만, 흠 할아버지는 사재를 털어 옥토를 만들어 300년 넘게 이웃을 도와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박세환이 쓴 흠 할아버지의 묘비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묘제(墓祭)를 지낸다”고 했을 만큼 흠 할아버지의 이웃사랑은 깊고도 길었다. 거평보는 우리 심문의 자랑이요, 후세에 널리 전할 정신적, 물질적 유산이다.

역사학에서는 17세기를 ‘소빙하기(小氷河期)’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후 이변이 발생했고, 조선도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예외가 아니었다. 청송 지역도 심한 한발로 농사를 망치는 일이 반복됐다.

1654년(효종 5년), 이런 상황을 목도한 흠 할아버지는 가산을 털어 남천(南川, 현재의 용전천)에 보(淤)를 ‘괴’로써 쌓았다(악은공과보, 혈축거평보(血築巨坪淤)). 43세 때였다. 흠 할아버지가 만든 거평보(속칭 거실보)는 당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대규모 공사였다. 하천의 폭이 200여m에 이르고, 당시는 논과 하천의 높이가 달라 하천의 물을 끌어올려 눈에 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 인근 동네 사람들을 모아 하천의 돌과 나무 등으로 보를 쌓고, 보에 찬 물을 1km 이상의 수로로 만들어 눈으로 끌어오겠다는 대단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흠 할아버지는 그 ‘꿈’을 실현했다.

거실보의 완성으로 파천면 덕리와 관리, 중평리 등 3개 마을 3만여 평에 이르는 ‘거실들’ 과 농가 수백 호가 큰 혜택을 입었다. 하늘만 쳐다보던 천수답

가재진빈민(出家財賑貧民)), 인근 주민들이 감격해 칭송했다고 한다.

지금도 주민들은 거실보를 보수할 때, 먼저 이 보를 만든 심흠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리고 일을 시작한다. 당시 대부분이 천수답이었던 청송의 다른 지역에서도 거실보를 본 따 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주들과 그 후손은 흠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해마다 가을 추수 후엔 제수를 마련해 흠 할아버지 제사에 보냈다고 한다. 근래에는 돈을 모아 제수비로 낸다고 한다.

### 3. 심흠 할아버지 <공적비>를 세우다

흠 할아버지가 만든 거평보의 혜택을 입은 지주와 그 후손들이 흠 할아버지 제사에 제수를 보내온 기간은 무려 324년. 청송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후세의 아름다운 보답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를 맞아 지주들은 이 관행을 중지하는 대신, 2007년에 심흠 할아버지의 묘소 옆에 공적비를 세웠다. 우리 집안에 비슷한 사례로는 평택 진위의 ‘능성구씨(영의정 심순택 배위)’가 지역 사회에



공적비 앞면  
“청송군 파천면 거평보 최초 창설인 통훈대부 총의위 청송 심공휘흠지묘”



공적비 뒷면  
“서기 1672년 공의 사후 2006년까지 324년 간 보(淤)에서 매년 공묘제수(公墓祭需)를 봉준(奉遵)하였으나 시대변화로 인하여 제수를 없애고 공의 공적을 비에 새겨 영원히 후세에 전하고자 함. 서기 2007년 12월 일 거평보(巨坪淤) 蒙利者(혜택을 입은 사람-필자주) 일동”



경북 포항의 돈재공종회를 찾아서

# 비록 은거했으나 이웃에 베푸는 마음은 되레 커졌다

## 4세조 악은공의 3남 돈재공 후손 모임...23세 심상권, 심문과 이웃사랑 뜨거워

### 1. 은거한 돈재공

4세조 악은공(휘 원부)은 영동정공(천윤), 현령공(천주), 돈재공(천식·天澍) 3 형제를 두셨다(『靑松世考』, 1929). 이 중 셋째인 돈재공은 세종조에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하고 '삼강소(三剛疏)'를 올렸다고 한다. 물러나서는 경남 하동에 '악양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다(묘갈명). 경남 의령군 백곡면 가현마을에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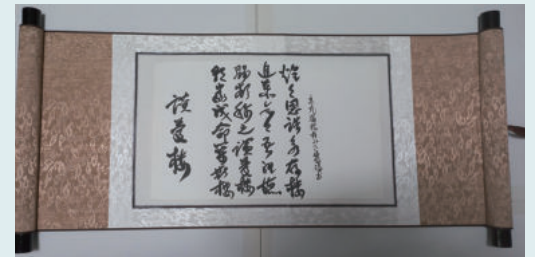


돈재공 심천식 묘소.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가현마을에 있다(2022년 8월 3일 필자 촬영).



돈재공의 아드님인 학와공(심용)과 손자인 운강공(심경)을 기리는 '청송심씨학강묘제단비'. '학강'의 '학'은 '학와공'에서, '강'은 '운강공'에서 따왔다. 심동택이 짓고 심상권이 건립했다. 사진 속 인물은 직계 후손인 심경섭 일가.

또 하나 기억할 일은, 송정거사가 고향 먹골 마을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 중 본채를 이축해 경주 구정동에 '송정(松亭)'을 짓고 '명륜서당'을 개설해 후학을 양성했다는 사실이다. 송정은 이후 시인묵객이 드나드는 경주의 명소가 됐다.



"조정의 명으로 건립된 이 누각, 찬경루라 현판을 내리셨다. 우리 조상님 은덕을 해마다 추모하고, 은혜로운 혜택이 빛나고 빛나노니 영원히 보존될 누각이여라."(『松亭草稿』1권, 32쪽)

### 2. 6세조 심용, 포항 입항

돈재공의 아들 학와공(휘 용·溶)은 문종조에 대사간이었으나, 단종 손위(遜位) 때 포항의 비학산(飛鶴山) 아래로 들어가 은거했다. 세조가 세 번이나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돈재공 묘갈). 이후 후손들은 대대로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

돈재공의 현손인 주부(主簿) 심서호(沈西好)는 정유재란 때 울산의 서생포 전투에서 순절했다. 돈재공의 6대손 심일립(沈日立) 부자는 병자란 때 출전했으나 강화(講和) 소식을 듣고 돌아와 은거했다(청송심씨학강묘제단비).

### 3. 23세 심상권, 중흥을 이루다



학와공 심용 선조가 은거한 경북 포항시 기북면 비학산 아래 먹골 마을. 이곳에 돈재공 후손들이 양반의 위상을 유지하며 세거했다(2022년 8월 3일 필자 촬영).

돈재공의 후예로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이는 송정거사(松亭居士) 심상권(沈相權, 1915~2019) 어른이다. 돈재공의 후손들은 대대로 지역 양반의 위상을 유지하며 주위에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송정거사는 1960년경 경주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젊은 시절 학문에 몰두했던 그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재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시 이웃과 심문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송정거사는 조부(심의려)와 부친(심동택)의 유택이 같은 포항 시내(죽장면 방흥리)이긴 하지만 기북면 먹골에서는 거리가 멀어 후손들이 참배를 불편해하자 먹골 마을 뒤 대숲에 '제단'을 세워 선조를 기리도록 했다. 현재 두 분의 직계 후손 30여 명이 문화(門會)를 조직해 친목을 도모하고 문중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다. 가끔 청송 분향에 참배하러 갔다는 송정거사는 찬경루를 이렇게 읊었다.



경주 구정동의 송정(松亭). 송정거사 심상권 어른께서 짓고 명륜서당(明倫書堂)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경주 인근의 시인묵객들이 드나들던 곳으로 유명하다.

1979년경 경주시 구정동에 마을회관을 지으려 했는데, 주민들이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자 송정거사는 당시 가격으로 2억 원이나 되는 200여 평의 노른자위 땅을 선뜻 희사하기도 했다(〈경주신문〉 1979년 3월 2일 자). 송정거사가 희사한 땅에 지은 마을회관 '청림관(靑林館)' 마당에는 지금도 심상권 어른을 기리는 공적비가 우뚝 서서 심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취재=심재석 종보 편집위원)



경주 구정동 마을회관 '청림관' 마당에 있는 송정 심상권 공적비. 1979년 마을회관을 지을 때 200여 평의 노른자위 땅을 희사했다.



# “일본에서 자랑스러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 15대 심수관, 김포 행사에 대한 감사 인사 전해 와

지난 5월 8일, 신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나를 개인적으로 초대해 저녁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경기도 김포에 사는 청송 심씨의 간부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일본 심수관 집안의 초대 선조인 심당길의 부모님 묘소가 김포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7월 9일 김포 귀항 고유제에서 절을 올리고 있는 15대 심수관

그들이 김포에서 가져온 ‘세보(世譜)’는 딱딱한 표지로 된 3권의 책으로 ‘청송심씨 곡산공파 세보’라고 되어 있었다. 그 책은 시조 ‘심홍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남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었고, 12세조에는 ‘讚(찬)’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거기에 덧붙인 기록에는 찬의 어릴 적 이름이 ‘당길’이며, 가고시마(鹿兒島)에 정착해 사쓰마야키(薩摩焼)를 창시했다고 되어 있었다.

예전에 아버님인 14대 심수관으로부터 초대 당길 할아버지는 시마즈(島津) 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것을 부끄럽게 여겨, 본명을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명으로 지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찬 할아버지의 부모님 묘소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일가들의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이다.

왜냐면 그 당시, 조선의 백성 중에서 성(姓)을 갖고 있던 것은 약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반’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성이 있었다. 세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 수 없는 증거가 당대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묘비일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전하는 김포에 사는 심 씨 분들의 말투는 마치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듯 생생했다.

내게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신기하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보였다. 나의 뇌리에는 찬 할아버지의 아버님인 우인(友仁) 할아버지와 그 형님인 의병대장 우신(友信) 할아버지 등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비로소 그것이 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름 아닌 ‘찬’ 할아버지의 부모님 얘기가 아닌가.

7월에 한국문화재청의 초청으로 다시 방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7월 9일에 참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그날은 하늘은 맑고 여름의 햇살은 찬란하게 내리쬐었다. 자동차로 서울의 숙소에서 40분 정도 갔을까 생각할 때, 김포에 도착했다. 일가들이 손을 쓴 듯, 도로 위에는 나의 내방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청송군의 명예시민으로 임명됐을 때도, 역시 청송의 일가들이 커다란 플래카드로 환영해 주었다. 시조 묘소로 참배를 가는 길은 깨끗하게 청소했고, 예법에 따라 제사를 올렸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밤에는 덕천마을에서 큰 환영행사를 열어줬다.

다만, 이번에는 청송 때와는 달랐다.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힘을 써서 신문과 방송사가 30개사 이상이나 대기하고 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이 걸으면 그들도 일제히 이동했다. 옮겨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TV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들은 울퉁불퉁해서 불편한 길에서, 때로는 미끄러지면서까지 우리를 촬영했다.

그리고, 드디어 찬 할아버지의 부모님 묘소에 도착했다. 묘 앞에 엮드려 있으면서 찬 할아버지가 이국에서 생애를 마칠 때 뇌리를 스쳐 갔을 어린 시절의 고향 산하와 부모님, 형제, 그리고 친구의 모습을 나는 생각했다. 망향의 한을 품고, 조선 의병대원의 미학과 긍지를 관철하면서 일본의 흠이 된 한 남자의 속마음이 갑자기 내 가슴에서 솟구쳐 올랐다.

‘만나고 싶었겠지.’

‘외롭기도 했겠지.’

그런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찬 할아버지를 대신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격조했습니다. 드디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랜 기간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속에서 속삭이자, 얼었던 얼음이 녹아서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비로소 말을 할 수 있었다.

15세대 전에 장렬한 인생을 살다 간 찬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이 가능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턱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데요시라는 거대한 야망이 조선반도의 대지와 부딪히는 바람에 부서져 날아가 버린 작은 파편, 그것이 찬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낯선 토지에서, 새로운 지배자 밑에서, 그들이 지닌 기술과 지혜로 그날그날을 살아갔다. 사쓰마의 땅에 장뇌제조 기술을 전해줘 ‘동양의 백은(白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를 쌓았다. 기와를 만들어 사람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목면을 만들어 자수를 전했다. 도자기를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의학을 전해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그들은 사쓰마변에 들도 없는 존재가 되

었다.

번주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생존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으로서의 긍지를 건 싸움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조선에도 없던 새로운 도예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나는 김포에 모인 일가들에 말했다.

“당길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한번은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恨)’만으로는 424년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힘들 때 등을 밀어준 일본의 친구가 있었고, 넘어지면 손을 내미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에는 높은 평가를 해주는 영주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리는 심문이라는 이름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다.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제사가 끝나고 땀범벅이 된 내 등을 일가들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줬다.

“벌써 간다고? 좀 더 있다가 가지.”

“자자, 더 먹으라고.”

청송에서 들었던, 남원에서 들었던, 저 친절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많이 있었다.

“幾山河、転びまろびつ4百年”(400년 동안, 구르고 넘어지면서 여러 산과 강을 넘어왔다는 의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 한 말이다.

김포에 모인 심 씨 일가들, 참배를 실현시킨 대평 회장님, 김포에 사는 청송심문의 간부들, 심규선 국장, 늘 인천에서 와주는 심충식 형님 등등,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많은 일본인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심 씨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갚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번역=심규선 종보 편집장)



15대 심수관은 김포 행사에서 받은 선물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 350년간 선산 시킨 모감주나무, 당진시의 보호수로

청송심씨 찰방공종회 심은섭 회장께서 '직계 선조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모감주나무'에 대한 서신을 대종회에 보내왔습니다.

6월 23일 심은섭 회장의 안내로 충남 당진시 고대면 향곡리 산 46번지에 있는 모감주나무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당진 선영에 도착해 보니, 초입에 서 있는 큰 나무가 바로 그 모감주나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감주나무는 중부 이남의 바닷가에 주로 군락으로 서식하는 활엽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륙에 홀로 서 있는 모감주나무는 그 자체로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당진 선영은 13세 입향조 찰방공으로부터 18세까지 60여 분의 선조가 잠들어 계십니다. 찰방공(휘 정홍)은 공숙공(휘 회)의 7대 손이고 충해공(휘 연원)의 4대손입니다. 찰방은 조선시대때 역참 일을 관리하는 종6품 관직으로 지금의 지방 우체국장과 철도역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이나 연락체계가 열악해서 역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찰방공께서는 형제를 두셨는데 장남은 휘가 集(집)이고 차남은 樂(락)입니다. 장남께서는 정3품 절충장군검지중추부사에 오르셨는데, 이를 기념해서 찰방공 묘소를 지금의 선영으로 이장하시고, 모감주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모감주나무는 350여 년 동안 묵묵하게 선영을 지켜왔습니다.

평소 송조사상이 깊은 은섭 회장은 선조의 얼이 서린 모감주나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이 나무를 당진시의 보호수로 지정받았습니다. 당진시는 수종이 희귀하고 스토리도 있어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당진시 고시 제2021-260호, 2021.11.11.).

심은섭 회장의 지극한 정성과 선산관리, 종회 회원들의 협조와 우애를 통해 찰방공종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취재=심창래 종보 편집위원)



선산을 지키온 모감주나무 앞에서, 심은섭 찰방공종회장(오른쪽)과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사진=심창래 종보편집위원)

### 특별기고

## 시어머님이 1년간은 무조건 조상 제사에 참석하라고 했던 깊은 뜻



박윤희  
시인·수필가·경북문인협회 편집위원장  
(구미 심학선 일가 부인)

철도 없이 겹도 없이 신혼살림을 경북 선산 시택에서 시작했다. 당시 학교에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시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읍내에 따로 살림집을 마련했지만 온전히 살림이 난 것은 아니었다.

추석과 설, 벌초, 가을 묘제, 어른 생신은 물론이고, 제사는 어찌 그리 많은지. 제사는 1년 동안은 의무 참석이었다. 사대봉제사를 올렸는데, 제사 참관도 일종의 수습교육이었다. 제사는 꼭 12시가 돼야 올랐다. 퇴근하고 바로 달려가서 제수를 마련하시는 시어머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해야 했다. 어버이날은 당연하고, 가까이 사시는 시삼촌 생신에도, 손님이 오시는 날은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택에 가야 했다. 정월 보름이면 오곡밥을 해놓았다고 해서 가서 먹어야 했다.

일단 시택에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아무 불편함이 없었지만 나는 정말 힘든 나날이었다. 육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줄곧 도심에서 자랐고 교회까지 다녔던 나로서는 내심 '딸을 낳으면 종갓집에는 막내로라도 시집을 보

내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시택 적응을 위한 1년간의 수습 교육은 어머니가 준비한 멋진 프로젝트였다. 그 1년 동안 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아무리 바빠도 출근 전에 밥솥 뚜껑을 꼭 열어보라는 말씀, 형만한 아우 없다는 어머니의 말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내겐 유효한 말씀이다.

또 1년의 제사 수습 기간이 있었기에 얼굴도 모르는 조상이지만, 그분들 덕분에 부모 형제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 어른이 된 두 딸도 급하면 사촌오빠를 찾고, 큰 집 조카들은 시집간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챙겨준다. 진짜 형제자매와 진배없다.

철없고 혼자 잘난 막내며느리를 위한 어머니의 멋진 프로젝트 덕분에 많은 친지의 얼굴도 빨리 익힐 수 있었고, 집안 내력과 심문에 대한 자부심까지 자식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아이들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심씨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어머니의 긴 안목 덕분이다.



# “3세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았다”

28년간 대총회장 지낸 선광 창업주 심명구 회장 탄생 100주년 전시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로〉 9월 15일~11월 15일 인천 선광미술관에서

㈜선광의 설립자인 고 금병(錦屏) 심명구 회장(1922~2008)의 탄생 100년을 맞아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로’란 주제로 심 회장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심 회장의 3세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이다. 이 전시는 평생을 바쳐 ㈜선광을 국내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키워 낸 심 회장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꾸몄다.

- 전시명: 금병(錦屏) 심명구 탄생 100년 기념전
- 부제 :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로〉
- 기간 : 2022년 9월 15일~11월 15일
- 장소 : 선광미술관 기획전시실 (인천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4) Tel. 032-773-1177

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 첫걸음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선광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이 재단을 통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 ▷3부 전시—손때 묻은 유품들

심명구 회장은 애정과 열정으로 종사(宗事)를 돌보았던 선친의 영향으로 본인도 28년간 대총회장으로 일했으며 항상 책과 문서를 곁에 두었다. 3부에서는 심 회장의 손때가 묻은 고서 등과 집안의 가보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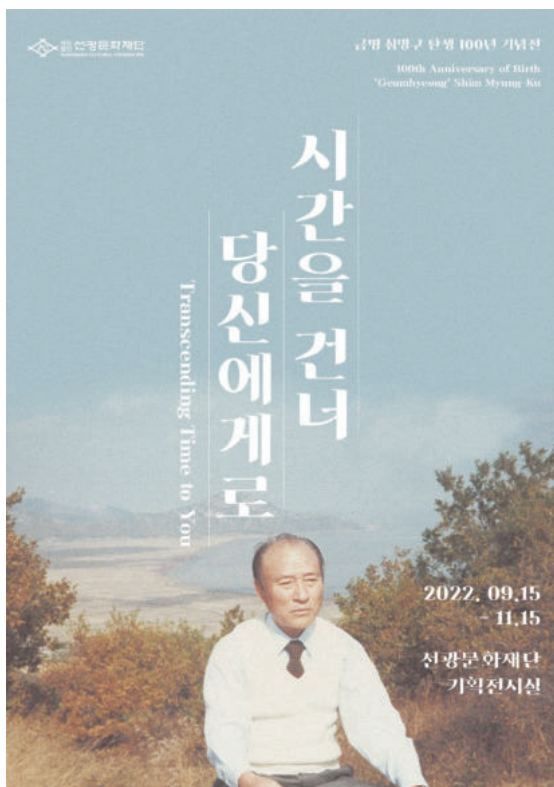
심명구 회장의 손때가 묻은 고문서들

전시한다.

심지원 지식(沈之源 誌石), 심지원 분재기(分財記), 청송심씨대종보(靑松沈氏大宗譜), 청송세고(靑松世稿), 익위공행장(翊衛公行狀), 청송심씨사현실기목록(靑松沈氏四賢實記目錄), 만사공년보(晩沙公年譜), 만사공법첩(晩沙公法帖), 만사유고(晩沙遺稿), 열성어필(列聖御筆), 1836년 교지(教旨), 1850년 교지, 안변부지도(安邊府地圖), 심원목(沈遠穆)의 과거시험답안지(科擧試驗答案紙), 연행록(燕行錄), 파주분수원 산송전말(坡州分水院山訟顛末) 등을 볼 수 있다.



선광문화재단 건물은 옛 선광공사의 사옥이었으며, 인천에서도 유서 깊은 건물이다.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로〉 포스터

### ▷전시 기획자의 말

심우현 선광미술관 관장은 기획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의 조부이시기도 한 심명구 회장(1922~2008)은 한 시대를 개척한 기업인이자 탁월한 연구가였으며, 인천 경제의 발전에 누구보다 많은 기여를 했고, 인천 지역의 불우한 학생들을 도왔으며, 나아가 한 집안을 일으킨신 위인이셨습니다.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로’ 가고 싶은 주체는 저를 포함해 할아버지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입니다. … 이 주제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선조들을 기려온 삶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의 서사는 ‘심돈영(1809~1859)’, 더 나아가 ‘심지원(1593~1662)’ 등 아

득한 과거의 선조들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선광을 경영하는 것 외에 할아버지 노년의 대부분의 활동은 항상 자신의 근원을 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부 전시—인천항 현대하역업의 선구자

심명구 회장은 1922년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해 안중공립보통학교와 서울 중앙중학교에서 수학하고, 1949년 담원 정인보가 초대학장을 지낸 국학대학교(고려대학교에 흡수 통합) 문학과를 졸업했다.

㈜조선기계제작소(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948년 4월 인천항에서 창고업 면허를 받아내 ‘선광공사’를 창업했다. ‘선광’은 ‘조선광복’에서 따왔다. 선광은 이후 통관업 등록과 더불어 1961년 항만하역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심 회장은 1994년 4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 인천항 하역업의 현대화와 항만 생산성 발전에 매진했다. 1부 전시는 그의 도전과 선광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선광은 198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에 리비아 브레가항, 미스라타항, 벵가지항만 등에 하역 노무자와 관리직 등 450여 명 규모의 국내 직원을 송출하고, 이후 10년간 건설 기자재 등 하역사업으로 연간 2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어 1985년 내항에 대형 곡물저장고인 싸이로를 준공하고, 1997년부터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해 곡물 수송을 현대화했다. 이어 인천 북항에 다목적부두를 건설하고 군산항과 평택항으로 사업지역을 확장했다. 2005년 군산항 6부두에 양곡터미널을 만들었고, 2015년에는 3천억 원을 들여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개장했다. 선광은 2022년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70만 톤(인천항과 합치면 94만 톤)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2부 전시—심명구 회장의 꿈, 헌신

심명구 회장은 27년간 대총회장으로 있으면서 파평윤씨 문중과 400년간 이어온 묘지다툼을 명예롭게 마무리했으며, 청송심씨대종보 간행, 6세조 양혜공(심석준)을 모신 임야의 삼성 강제수용 저지, 13대에 걸친 파주 선영의 재정비, 산재한 종중 재산보존 등의 업적을 남겼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려면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선대의 책들도 번역 발간해 널리 보급했으며, 집안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책과 문서들을 잘 보존했



9월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심회 정기총회에서 고 심명구 회장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있다. 오른쪽 끝이 고 심 회장의 차남 심충식 청심회장.



# 심상돈 스타키그룹 대표, 마침내 ‘10년의 꿈’을 이룬다

## 7월 27일 제막 美 알링턴 국립묘지의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만드는 데 기여



심상돈 대표는 7월 27일 추모의 벽 제막식에 참석해 전사한 카투사의 이름이 새겨진 화강암 위에 국화를 헌화했다.

9월 4일 오전 SBS는 ‘워싱턴에 한국전쟁의 별이 새겨지다’라는 다큐멘터리를 50분간 방송했다. 미국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얼마전 완공한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다큐멘터리엔 한국전 참전용사 윌리엄 웨버 대령과 새에덴교회의 소강석 목사, 그리고 심상돈 스타키그룹 대표가 출연했다. 심 대표는 2011년부터 추모의 벽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왔다.

심 대표가 이 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1년 7월 미국으로 가는 델타항공기 내에서였다. 동아일

건립 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을 2016년 10월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해 건축허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약 279억 원의 비용 마련이 난관이었다. 미국 의회는 법안은 통과시켜주면서도 연방정부 예산은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민간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심 대표는 2012년에도 워싱턴에서 웨버 회장을 만나 그림 판매와 기금 마련 방법 등을 논의하고 추모의 벽을 세울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도 둘러봤다. 그는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등도 만나 기금 마련에 도움을 요청했다(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은 SBS 다큐멘터리에도



9월 4일 오전 SBS 다큐멘터리 <워싱턴에 한국전쟁의 별이 새겨지다>에 출연한 심상돈 대표.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거나 카투사전우와의 재회, 개막식 때 특별귀빈으로 참석하는 모습 등이 나왔다. <SBS화면 캡처>

보에 실린 웨버 대령의 “6·25 美추모벽 건립에 한국도 참여를”이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그 기사를 읽고 웨버 대령의 노력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인터뷰 내용 중 추모의 벽에 6·25전쟁 때 전사한 카투사 명단도 새기겠다는 말에 주목했다. 카투사 출신인 심 대표는 2007년 대한민국카투사전우회를 만들고 초대회장과 제3대 회장을 지낼 정도로 카투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 도착해 웨버 대령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추모의 벽 건립기금 마련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 소장하고 있던 오세영 화백의 그림을 흔쾌히 기증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재단(회장 윌리엄 웨버 대령)이 기금 마련을 위해 팔고 있던 DVD도 대량으로 구입했다. 오세영 화가는 사단법인 국전작가협회 제2대 회장과 스타키갤러리 관장을 지냈으며, 1985년 미국 평론가들이 해외 10대 미술가로 선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화백이었다.

웨버 대령의 헌신과 노력으로 미 하원은 2011년

출연한다). 심 대표는 방송에도 출연해 적극적으로 기금 마련을 호소했으며, 본인도 추가로 기부했다. 2019년 마침내 한국 정부가 건립비의 90%(약 240억)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추모의 벽은 2021년 5월 21일 마침내 착공식을 갖는다.

원래 추모의 벽에는 카투사 개인의 이름은 새기지 않고 전사자 전체 숫자만 기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 대표는 미국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재단 이사 및 명예회원(Honorary Member)으로서 꾸준히 노력한 끝에 카투사의 이름도 개인별로 새기게 됐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추모의 벽은 1m 높이의 경사진 화강암을 130m가량 둥그스름하게 이어붙인 형태다.

추모의 벽은 16개월의 공사 끝에 7월 27일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가 제정한 유엔군참전일이고, 1995년 한국전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준공한 날이다. 심상돈 대표는 특별 귀빈(Special honor guest)으로 초청받

아 제막식에 참석했다. 애석하게도 윌리엄 웨버 대령은 제막식을 몇 달 앞둔 지난 4월 별세했다.

심 대표는 미군 전사자와 함께 대한민국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은 한미동맹의 상징적 조형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곳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미동맹의 가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세계적인 청각전문기업 스타키 히어링 테크놀로지스(Starkey Hearing Technologies)의 한국 지사인 스타키그룹을 올해로 26년째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분야의 최장수 전문경영인이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할 때 3년간 영어만 쓰면서 영어를 익혔고, 난청과 보청기를 알게 됐으며, 미국 문화도 배웠다. 이 경험이 그가 미국 회사의 CEO가 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카투사전우회 회장으로 있던 2010년 10월, 서울 용산기지 내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카투사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전우회와 현역 카투사 장병들을 위한 의장행사를 열었다. 1950년 8월 카투사 창설 이래 처음 열린 행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현직 카투사 장

병과 사회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심상돈 회장은 당시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과 함께 사열을 받았다.

심 대표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나눔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SBS 다큐멘터리에서도 방송 중 만난 카투사 선배에게 스타키의 최신 인공지능 보청기를 선물하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미 보병 제

2사단 참전기념비를 함께 방문하는 등 여전히 카투사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추모의 벽 건립 외에도 10여 년 전부터 6.25 전쟁 영웅, UN군 참전용사, 독립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보청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심상돈 대표는 SBS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본인이 말한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10년 10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사열을 받는 심상돈 대한민국카투사전우회장.



대중회와 지파종회 활동

2022년 제2차 대중회 회장단 회의(7월 21일)



2023년 달력, 13상신 사진과 설명으로 만들기로(7월 28일)



달력제작위원회 모임. 앞줄 왼쪽부터 심익섭 위원장, 심규순 명지대 교수,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재금 전 김포한강신협 본점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심은석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심인구 도예 명인, 심윤보 청수회 사무국장, 심인태 대중회 총무이사,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창래 전 YTN 국장 (사진=심성섭 청수회 운영위원)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에게 종보 152호(2021년 11월 30일자) 액자 전달(1월 21일)



왼쪽부터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은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심달훈 대중회 감사, 심충식 대중회 이사

심재규 광주팔레스호텔 회장에게 종보 155호(2022년 5월 31일자) 액자 전달(7월 21일)



7월 21일 대중회 회장단 회의에서, 심재규 광주팔레스호텔 회장(왼쪽) 과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창섭 청도울췌공예관장에게 종보 156호(2022년 7월 31일자) 액자 전달(8월 3일)



왼쪽부터 심준섭 위원의 부인 김유숙 여사, 심준섭 종보 편집위원, 이정희 공예작가, 심창섭 명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은택 여수남양종합목재 회장, 심은택 회장의 부인 박순애 여사, 심중섭 종보 편집위원

청송 거주 청장년회 회원 52명 합열과 곡성의 선조유적지 답사(7월 24일)



전북 합열 2세조 함문지후공 묘소 탐방... 심재열 전북종회 총무 등이 먼 곳까지 와서 안내했다.



전남 곡성 군지촌정사 탐방... 심우경 곡성종회 전 회장 등이 광주광역시에서 오셔서 안내했다.

명종의 인순왕후 기신제(8월12일)



왼쪽부터 심상경 신천공종회장, 인순왕후 기신제 아현관 심학섭 신천공파종회 부회장,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부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예방(8월 17일)



왼쪽부터 심가희·심가영 아트네트웍스(주) 공동 대표, 심부건 위원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나이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지회장 겸 영화감독

청심회 정기총회 (9월 19일)



왼쪽부터 심충식 회장, 심상돈 전임회장, 심재섭 신임회장, 심양섭 사무총장, 심웅섭 전임회장

신임회장단

대중회



심재규 부회장

인천종회



심좌보 신임 회장

내자시 판관공종회



심대섭 신임 회장

사인공종회



심인보(종복) 신임 회장

진천울촌종회



심상경 신임 회장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일 저런일

2022년 중반기 인사

- 〈충북 음성군〉(6월 29일자)
- ◇6급이하 전보 ▲삼성면 심병섭 〈창원 소방〉(7월 1일자)
- ◇소방경 전보 ▲마산소방서 심보섭 〈경기도 파주시〉(7월 1일자)
- ◇5급 전보 ▲위생과장 심재균 〈대구소방안전본부〉(7월 12일자)
- ◇소방령 전보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심춘섭 〈경기 오산시〉(7월14일)
- ◇지방사무원 ▲초평동장 심연섭 〈전북 고창군〉(8월 12일자)
- ◇전보 ▲선운산공원팀장 심성화 ▲수산진흥팀장 심정현 〈전라남도〉(7월 18일자)
- ◇승진·전보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전남 여수시〉(7월 18일자)
- ◇5급 전보 ▲중부민원출장소장 심순섭 〈충청남도〉(7월 19일)
- ◇5급 전보 ▲농업기술원 심후석 〈충청북도〉(7월 19일)
- ◇4급 승진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심규홍 〈국도교통부〉(7월 21일)
- ◇과장급 전보 ▲자동차정책과장 심지영 〈산업은행〉(7월 25일)
- ◇탐장 ▲분당 심승섭 〈전북 전주시〉(7월 28일)
- ◇서기관 전보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심규문 〈서울문화사〉(8월 10일자)
- ▲대표이사 심정섭 〈세종특별자치시〉(8월 31일자)
- ◇6급이하 전보 ▲건설교통국 심선혜 〈부산교육청〉(9월 1일자)
- ◇교장승진 ▲정원초 심정희 〈대구교육청〉(9월 1일자)
- ◇교장 승진 ▲효명초 심재석 〈대전교육청〉(9월 1일자)
- ◇초등학교장 ▲계산초 심재석 〈인천교육청〉(9월 1일자)
- ◇교장 전보 ▲구리고 심한수 〈경기교육청〉
- ▲교육정책국 교원인사과 장학관(과장) 심상웅(울산교육청)(9월 1일자)
- ◇교장승진 ▲울산행복학교 심민희 〈경기도교육청〉(9월 1일자)
- ◇교장 발령 ▲가남초 심상혜 ▲대선초 심봉은 ▲상록고 심재균 ▲이천제일고 심정화 ▲수리고 심연아 〈충북교육청〉(9월 1일자)
- ◇특수학교장 ▲정주 청주해화학교 심명숙 〈충남교육청〉(9월 1일자)
- ◇초등(특수)학교 교감 승진 ▲천안 심대영
- ◇중등(특수)학교장 전보 ▲은산초·중 심상균
- ◇일반직 전보 ▲서천 심정남 〈전남교육청〉(9월 1일자)
- ◇교장 전보 ▲목포서해초 심선숙 〈경북교육청〉(9월 1일자)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및 전직 ▲구미교육지원청 심미희
- ◇교장 승진 ▲북주여자중 심훈섭 〈경남교육청〉(9월 1일자)
- ◇초등교장 ▲김해 율하초 심광보 ▲양산 중부초 심영주
- ◇유치원장 ▲진주 진주유치원 심정란
- ◇중등교장 ▲마산서중 심규철 ▲김해울하고 심재일 〈숙명여대〉(9월 1일자)
- ◇보직인사(교수) ▲아시아여성연구원장·다문화통합연구센터장 심숙영 〈경남 하동군〉(9월 4일자)
- ◇4급 승진 ▲경계도시국장 심경보 〈충청북도〉(9월 4일자)
- ◇5급 전보 ▲혁신도시발전과 심경만 〈전북 진안군〉(9월 5일자)
- ◇6급 이하 ▲부귀면 심현정 ▲추천면 심진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8월 11일)



심종섭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8월 23일)



심은석 총경 충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8월 12일)



심재현 제48대 울산세관장(7월 11일)



심우정 전남도청 안전정책과장(7월 18일)



심만섭 사회적협동조합 더함 이사장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사회봉사대상 (8월13일)



심정민 한국총평론가회 회장(9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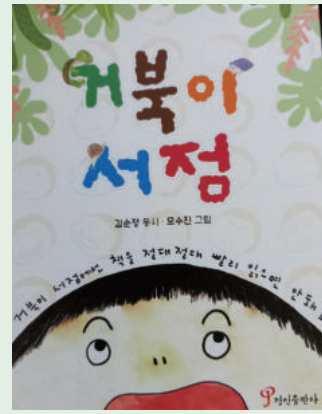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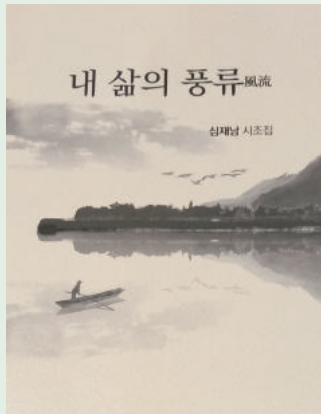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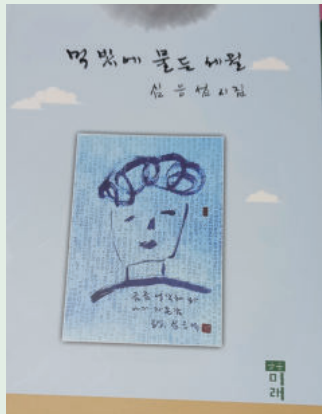
심재익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8월 23일)

(주)경우크린텍 심상천 대표(왼쪽),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입장권 구매약정 (8월 24일)

〈떡 빛에 물든 세월〉 예산 심응섭 시집

〈내 삶의 풍류〉 전주 심재남 시조집

〈거북이 서점〉 전주 심철웅 일가의 아내 김순정 씨 동시집



경상국립대 심귀연 교수 〈내 머리맡의 사유〉 발간



동국대 WISE캠퍼스 심재란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9월 13일)



심정연 전북사회복지대상(9월 19일)

현대건설(주) 책임매니저 심재학 건설의날 「산업포장」 수상(8월18일)

심재우 학생(한문서예), 국가보훈처장상(8월 20일)





공지사항

청송심씨종보 유료 구독자 1만 명 확보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청송심씨종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뉴스, 선조 및 관련 사적지, 족보수단, 장학금 신청, 대종회와 지파종회 활동 등을 소개하는 기사 등을 실어 격월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6호(7월 31일 자)에는 15대 심수관의 김포 귀향 행사를 6쪽에 걸쳐 게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종보 편집 위원도 수시로 총원하고 있습니다.

대종회는 연 구독료 10,000원 이상을 내는 독자 10,000명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보를 구독하려면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의 전화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찬조금이나 재능기부 등으로 종보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싶은 일가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 신청: 전화 02) 2267-7857, 9339, 팩스 02) 2269-7755》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종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 **장학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순국12주기 남일 심수택 의병장 추모식」 안내

남일 심수택의병장기념사회(회장 심만섭)는 「순국12주기 남일 심수택의병장 추모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많은 일가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2. 10. 4(화) 10:30
- 장 소 :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 함평군 월야면 가차길 51-1 (우천시 월야초등학교 강당)
- 행사일정
  - ▶ 10:30~11:00 : 식전행사 (관악단공연)
  - ▶ 11:00~11:50 : 추 모 식 (의병극)
  - ▶ 11:50~13:00 : 식후행사 (오찬)
- 연락처 : 남일 심수택의병장기념사회장 심만섭 010-9442-2760

2022년도 추향일정 안내

일 시	세(世)	소재지	주차장
10. 4. (화)12시	시 조 문림랑공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덕리 427
10. 6. (목)11시	2세조 합문지후공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리 243-1
10. 8. (토)11시	3세조 청화부원군	안성시 당왕동 산19-6	당왕동 290
10.10. (월)11시	4세조 청성백 정안공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아미리 554
10.12. (수)11시	4세조 배위 (청주송씨)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분평동 262
10.20. (목)11시	2세조 봉익대부공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산31	양지리 791

■ 올해 추향도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하여 대종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봉행할 계획입니다. 참사(參祀)를 희망하시는 일가분은 제향일 5일전까지 대종회 총무이사(010-5591-0055)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족보(대동세보)〉를 찾습니다.

청송심씨족보(대동세보)는 1545년(명종 1) 좌의정 만취당상공(휘 通源通원)이 순천 부사때 간행한 을사보(乙巳譜)를 초간본으로 하여 1562년(명종 17)에는 전주부윤공(휘 鎡鎡)을 중심으로 임술보(壬戌譜), 1578년(선조 11)에는 청양군 심의겸을 중심으로 무인보(戊寅譜), 1649년(인조 27) 영천군수(榮川郡守) 심장세(沈長世)가 그의 수정 초보를 바탕으로 영주에서 간행한 기축보(己丑譜)를 편찬한 바 있다.

그러나 을사보와 임술보는 실전되었고, 무인보는 임란 때 소실되었으며, 기축보는 영인본을 현재 대종회에서 보존하고 있다.

과종회와 일가분께서 위 초간본부터 3간본의 대동세보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보존된 곳을 아시는 분께서는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각 찬조 2022.7.17~2022.9.18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개재

 <b>심석산</b> 정어공어비리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5월	 <b>심규화</b> 울산대금위공종회 회장 종보찬조 150만원 2022년6월	 <b>심재갑</b> 곡산공파종중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6월	 <b>심재봉</b> 인방산업 회장 종보찬조 300만원 2022년6월	 <b>심상균</b> 부산경총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7월	 <b>심재규</b> 대종회 부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7월	 <b>심장식</b> 함흥공파종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2년7월	
 <b>심재수</b> 여수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8월	 <b>심상경</b> (주)협동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8월	 <b>심 호</b> 전.감사원 교육원원장 장학찬조 1,000만원 2022년8월	 <b>심재윤</b> 광주송암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8월	 <b>심기섭</b> 별좌공화성종회 회장 종보찬조 80만원 2022년9월	 <b>심무섭</b> 안효공종회 회장 700만원 (종보500만, 달력100만, 50년사 100만) 2022년9월	 <b>심재섭</b> (주)우리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9월	 <b>심진섭</b> (주)골든포우 회장 장학찬조 500만원 2022년9월

**종보찬조 (2022.7.17~2022.9.18)**

- 700만원 안효공종회(회장 심무섭)
- 80만원 별좌공 화성종회(회장 심기섭)
- 50만원 여수종회(회장 심재수)
- 광주 송암종회(회장 심재윤)
- 20만원 김계순(경기 심윤섭 모친)
- 원주 황성종회 영신부드
- 10만원 심재진(양산) 심근택(청송) 심연춘
- 심완규 심판규 심춘섭(서울)
- 무속공파종회 심광식(서울)
- 심학선(박윤희)
- 5만원 심택수 심윤섭 심우경(광주)
- 심종섭(음성) 심우진 심춘택 심희석
- 심종우(부산) 심만섭(함평) 심상은
- 6만원 심강채(전남)
- 3만원 심재창(광명) 심재수
- 2만원 심용택 심영희(일산) 심완규 심향섭
- 심재하
- 지로종보찬조 909,220원 지로입금분합계

**임원회비**

- 부회장회비 30만원 심무섭(부회장)
- 이사회비 5만원 심우경(광주)
- 심춘택(원주)
- 심상경(진천)
- 심재덕(부산)
- 심상은(김포)

**장학찬조**

- 장학찬조 1,000만원 심 호(전.감사원교육원 원장)
- 500만원 심진섭((주)골든포우 회장)
- 100만원 심상경((주)협동 회장)
- 심재섭((주)우리 회장)
- 9만원 심재희
- 3만원 심준호(청송)